

진안군은 임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돈이 되는 산림조성, 각종 재해에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규원, 군민행복을 위한 산림복지 활성화라는 3대 핵심 목표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산림강국이 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푸른 산 일군다



16억8800만원 투자
대대적 조림사업 추진

큰나무가꾸기 등
경제림 육성 앞장

휴양인프라 구축
임산물 생산기반 확충



▲가치있는 산림지원 조성(밀원수 확대)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경영목적에 맞게 조림방법과 식재수종 및 분수를 다양화하고 경제·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약 16억8,800만원을 투자, 325ha에 75만4,000본의 대대적인 조림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별로는 경제림조성 210ha, 큰나무 80ha, 특용자원 5ha, 유휴토지 10ha, 밀원수 조림 20ha 등 적재적소 개념의 조림사업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복합소득림 조성을 위해 산지과수 및 유실수, 특약용수(나무순채) 등을 식재하는 유휴토지 조림사업은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

▲숲의 가치증대 및 녹색일자리 창출
군은 산림의 생태환경적 건전성을 유지하고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을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2015년 전년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2016년에도 큰나무가꾸기 등 1,760ha의 숲가꾸기를 통해 경제림 육성 및 산림지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데 앞장 설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일환인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8명(연인원 2000명)을 고용해 신속한 수목 관련 민원처리 및 산물수집을 통한 난방용 땀값 지원을 통해 산림행정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경영 선진화를 위한 임도개설
임도는 임산물의 반출과 임업의 합리적 경영 및 산림의 집약적 관리에 기반이 되는 시설로서 산림재해예방 보전 휴양지원의 개발과 제공, 지역교통의 개선, 지역산업의 진흥 역할 등 산림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다.

올해에는 부귀산 일원에 사업비 14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간선임도 5km 개설하고 임도 접속조사를 통해 노면이 파손되거나 배수가 불량하고 사면 붕괴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 17km 구간을 보수 정비해 산림경영 인프라 구축 및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등산환경 조성 및 휴양인프라 구축
등산인구 1,800만 시대! 마이산을 조망하는 중심축으로 주요 등산로를 정비해 관광자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2015년에는 부귀산 등 3개소에 42km를 정비 완료하여 전국의 등산객에게 안전한 산행과 편의를 제공했다.

2016년에는 운장산 등 4개소에 명산 조성을 위한 등산기반 확충사업을 본격 실시할 계획으로 산림치료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삼림욕, 풍욕, 음욕을 즐길 수 있는 편백숲 삼림욕장을 개장하는 등 산림휴양시설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숲의 질 향상을 위한 청조적 마을만들기
경관·생태 조성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청조적 마을만들기 경관·생태 조성사업으로 진안읍 하가막 마을에 2015~2016년 2년에 걸쳐 3억4,700만원을 투자한다.

자연적 경관 및 생태를 조성 복원하고 시설물 보완 및 체험사업개발을 통한 테마관광 마을로 육성하여 다시 찾고 싶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유통구조 개선
대표적인 고소득 작목인 표고버섯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표고버섯 재배시설 지원 및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을 포함한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산양삼, 고사리, 더덕, 도라지 등 임산물 79개 품목을 대상으로 식재비와 기반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임산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생포고 산양삼, 꽃감 등 신산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재배단체에 산양삼, 꽃감, 표고 등 임산물 출하시 포장제 제작비를 지원하는 등 유통구조 개선 및 안전 임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산간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임산물 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진안군은 전체 면적의 80%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산림 군이다."며 "돈이 되는 산림환경 조성과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와 체계적인 관리로 완벽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민 기자

